

주제회의
여성

태평양의 ‘초록 심장’

박재아
[태평양관광기구 한국지사장]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Moana)’의 배경은 남태평양 사모아(Samoa)다. 영화는 코코넛이 시들어가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을의 정이 사라지는 장면을 비춘다.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이 여신의 심장인 ‘빛나는 초록색 돌’을 되찾자 섬에는 다시 풍요가 찾아온다. 태평양의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스스로 모아나가 되기를 자처하며 지혜를 모으는 중이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초록 심장’은 과연 무엇일까?

‘불의 고리’ 안에 위치한 남태평양 섬나라에는 거의 매년 1~2월이 되면 불청객이 찾아 든다. 최대 풍속 320km에 이르는 5급 초강력 사이클론 찾아 들고 강도 8 이상의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후변화로 남태평양 섬나라 대부분이 금세기 안에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올해 유엔 기후변화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가 작년 8월 발표되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전염병에 취약한 집단 부족 생활을 하는 태평양 섬나라들은 가장 먼저 문을 걸어 잠갔다. 스페인독감이 발생했을 때 사모아는 인구의 22%가 목숨을 잃은 경험이 있어 전염병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이 태평양 섬나라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는 70%에 육박한다. 국경을 다시 연다 해도 항공 연계성이 워낙 낮았던 지역이라 언제 관광산업이 복구될지 낙관할 수 없다. 악재가 계속 겹쳐서 일어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상, 이를 ‘퍼펙트 스톰’이라 부른다. 지금 태평양의 상황은 한 마디로 이렇다. 그리고 이 모든 짐은 태평양 여성들의 몫이다.

망망대해라고만 생각했던 태평양에는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마셜 제도, 니우에,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팔라우라는 이름을 가진 14개의 태평양 도서국이 존재한다. 이 섬나라들 제각각 문화, 언어, 인종 달라 문화 다양성이 충만한 섬나라들이다.

여성의 지위와 권리도 제각각이다. 모계사회인 통가는 여성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 부족 간 전쟁이 잦았던 피지에는 여성을 때리는 도구가 있었을 만큼 여성 인권이 낮은 편이다.

아직도 수렵이 중요한 자원확보의 수단인 태평양은 전 국민이 어부고 농부다. 뱃사람이 많은 지역의 여성들은 억척스럽고 강단이 있는 편이다. 태평양 여성들도 그렇다.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지는 건 여성들의 일이다.

기후위기로 태평양은 더욱 삶이 팍팍해졌다. 건강한 먹거리, 깨끗한 식수, 공산품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여성들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상상조차 가질 않는다.

태평양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특히 기후변화로 밭 디딜 땅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공유하며 잠시라도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섬을 다시 풍요롭게 할 초록 심장은 아이들의 미래다. 태평양의 여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미래를 되찾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